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

나는 새해에 즈음하여 말리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들
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변역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하게 됨을 특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2011년이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세계의 평화와 현대성, 진보를 실현하는데서
성공을 이룩하는 해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각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말리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나의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합니다.

말리공화국 대통령 아마두 투마니 투레

2010년 12월 20일

바마코

평양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

새해 2011년을 맞으며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는 행복과 친선의 정을 담아
각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김정일각하께서 2011년 새해에도 조선의 발전과 승리를 위한 투쟁을 명도하시는
사업에서 언제나 성과를 거두실것과 조선과 아시아나라들, 전세계의 진보를 위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인도네시아와 조선 두 나라와 인민들의 진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과 조선사이의 훌륭하고 활력적인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메가와띠 수카르노쁘트리

총서기 자호 조 꾸물로

2011년 1월 25일

자카르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콜롬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각하

나는 스리랑카독립 6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앞
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정치적인안정과 발전 그리고 인민의 복리
를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2월 2일

평양



위인칭송의 뜨거운 마음안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활짝 피워가고있다.
—건설전제공업성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실에서— 본사기자 장정일 찍음

아버이 그 사랑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하리

인민봉사의 전당 옥류관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다심한 은정

수도 평양의 아름다움과 함께 날로 커가는 인민의 행복을 담고있고 끝없이 흐르는 대동강!

번영하는 내 조국의 자랑찬 력사와 더불어 그 흐름도 용용한 락원의 강에 또 하나의 최한한 모습이 비껴어 사람들
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대동강변의 옥류벽에 희상급의 로리 전문식당이 새로 일떠서 조선의 걸작으로 이른날 옥류관이 인민봉사의 전당으로서의 자기의 면모와 구색을 완전무결하게 갖추었다.

새로 일떠선 로리전문식당으로 하여 옥류관은 정녕 우리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아버지장군의 열화같은 인민에 대한 사랑의 봉사전당으로 전변되었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기술이 시는 우리 장군의 사색과 은정에 정갈함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날의 감격을 리치며 이곳 일꾼인 문경호동무가 우리에게 한 말이다.

그의 말을 새기며 백두산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으로 엮어진 옥류관의 연희사를 더듬는 우리의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젖어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한결같은 지지는 우리 당의 불멸의 힘의 원천이며 가장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수수천년 세월 흐르는 대동강의 맑은 물에 발부리를 잠근 옥류벽우에 한쪽의 그림처럼 자기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옥류관!

정녕 언제부러 너의 자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었고 너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인민봉사의 전당으로 전변시켜 주신분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추억은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주제 47 (1958)년 8월 어느날의 이른 새벽으로 거슬러오른다.

수도 시민들이 아침 출근길에 오르기 도 쉼 없이 우리 수령님께서 타신 한복의 배가 대동강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배가 반월도안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안방에 미소를 띠우시며 배를 멈추게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기슭에 서서 대동강을 바라보시었다. 그리고는 기슭에 서서 대동강을 바라보시었다.

시며 배를 멈추게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기슭에 서서 대동강을 바라보시었다.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으로 그것을 가리키시면서 저 바위가 옥류벽인데 집터로는 아주 좋은 자리라고, 바로 저기에 대동강공정역 어울리면서 마치 물우에 떠있는것처럼 보이는 조선식로리집을 빈틈하게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시작된 옥류관건설의 나날과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옥류관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봉사기지로 되게 하시려고 기술이신 아버지수령님의 헌신적고고를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 수 있을것인가.

어느해인가 옥류관을 또다시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로리사들도 알지 못하였던 정반국수의 특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나서 일꾼들에게 옥류관에서 국수에 무엇을 더 하는가고 물으시었다. 한 일꾼이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녹두지짐은 어떻게 지어야 하고 갈비국은 어떻게 썰어야 제맛이 나며 에스키모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다심하고 웅심깊은 사랑속에 옥류관은 민족로리의 원종장, 인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적봉사기지로 자랑될치게 되었다.

이민위친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간직하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하에 하여 시작되고 흘러온 옥류관의 자랑찬 력사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파사로운 손길에 더욱 빛나고있다.

옥류관을 찾으신 때마다 옥수와 국수우미, 국수가공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은정은 평양맹맹을 비롯하여 친한친미를 자랑하는 옥류관의 음식마다에 깃들여있다.

그중에서도 고기쟁반국수는 옥류관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또 하나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아직 나라형편이 어렵던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옥류관에서 고기쟁반국수를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하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며 봉사에 필요한 고기와 갖가지 양념감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늦깎이와 늦자기라, 늦집시에 이르기까지 일식으로 새 로 만들어 보내주도록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친히 이룩까지 지어주신 옥류관을 명실공히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넘쳐나는 봉사전당으로 되게 해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되새김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

불현듯 하나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우리 인민이 민족의 아버이를 잃은 최대의 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만수대덕에서 새벽녘이 되어 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온 평양시당의 한 책임일꾼은 얼마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어오시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옥류관이 운영되고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아버이수령님을 잃은 상심의 아픔이 그 누구보다 크실 우리 장군님께서 옥류관운영에 대해서까지 마음을 쓰시는 것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일꾼은 미처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었다.

그이께서는 옥류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슬퍼할수록 인민들이 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아버지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을 위해 일하시다가 집무실에서 순직하시였는데 우리가 수령님의 뜻을 어겨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인민들을 위해 옥류관을 계속 운영할데 대하여 강조 하시었다.

이처럼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잊어볼 수 없는 사랑과 은정속에 옥류관은 나날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는 대중적봉사기지로 전변되고있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그르히 갖추고 여러가지 명료리봉사로 소문을 내는 희한한 옥류관 로리전문식당, 여기에 또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며 인민의 탄복을 쫓아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파사로운 손길이 어려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주제 94 (2005)년 8월

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신어 농업생산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드넓은 농장벌을 바라보시며 종자혁명명은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에서 기본고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의 종자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그 비배관리를 과학 기술적으로 하는것은 농업생산에서 기초적인 문제이며 주체농법의 기본요구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앞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적지적작의 원칙에서 나라의 농업생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러자면 매 지방, 매 농장에서 지대적특성과 토양조건에 따라 그에 알맞은 작물과 품종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영농방법을 부단히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농사는 생물공학적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자재와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다고, 때문에 우리 식의 경작체제를 완성하는것과 함께 선진적 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말씀은 나라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이었다.

주제 92 (200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 때였다.

농장일꾼들로부터 영농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뒤그루농사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알찬 열매들이 주렁진 드넓은 농장벌을 바라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뒤그루로 심은 작물들의 훌륭한 작황을 마비한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부합된 이 재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작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지침이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최근년간 여러

지방들에서 앞그루와 뒤그루의 소출을 다같이 높임으로써 우리 당이 제시한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혁력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하시면서 두벌농사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적절농법이라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농장의 경험은 두벌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자를 출개 선정하고 긴장한 로력맥을 풀어 땅의 지력을 높이고 관수체계를 철저히 도입하는것이라는것을 현실로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농장을 더 다듬어 주시었다.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두벌농사의 위대한 인민의 력사를 펼쳐 주시고 조국의 대지를 오목배와 무르익은 인민의 락원으로 변모시켜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뵈며 농업생산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다.

본사기자 계성남

본사기자 리금분

80년전 설날에 지어주신 뜻깊은 이름

우리가 설명절을 앞두고 반일에 국렬사 안록주동지의 유자녀인 안히두동무를 만나기 위해 중구역 역전동 41인민반에 있는 그의 집 찾은것은 저녁해가 질무렵이었다. 안해인 조영실녀성이 기다리고있는듯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별세 설명절이 다 되자라도 한적처럼 방안에는 온 가족이 모여앉아 명절분위기로 흥성이고있었다.

어느 한 방에 들어서니 벽면에 안록주동지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지성미가 넘치면서도 강직해보이는 안록주동지의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

사진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는 우리에게 평양철도국에서 당일군으로 사업하고있는 안히두동무가 이제 며칠 앞이면 맞게 될 설명절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신 때로부터 8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때의 가슴뜨거운 사실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수령과 전사사이의 흐르는 동지적 사랑과 의리의 세계야말로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숭고한 동지애와 높은 덕망을 지니시였기때문에 주변에 늘 동지들을 많이 가지고계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록주동지를 처음 알게 되신것은 혁명활동의 중심지를 걸림으로 옮기시고 활동무대를 광활한 지역으로 넓혀나감에 따른 때였다. 그때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걸림으로 모은 청년들

반일애국렬사 안록주동지의 유자녀들을 만나보고

가운데는 차광수동지와 같은 지식 청년들도 있었고 김혁동지와 같은 혁명시인도 있었으며 김일성문학상을 졸업한 안록주동지도 있었다.

걸림에서 10리가량 되는 신안촌에서 차광수동지와 함께 교민생활을 하던 안록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걸림 지구 반체청년동맹에서 핵심성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그후 오가자의 삼성학교에서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오가자를 혁명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안록주동지는 최소년이라는 혁명가로 불리우게 성장하였다. 혁명동지들과 오가자인민들이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그토록 위대하고 존귀하신분을 어찌 새별에만 비기겠는가고 하면서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은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러하던 주제 20 (1931)년의 설날이었다. 이날은 안록주동지의 한생에서 가장 있을수 없는 의외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진국사업에 관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진국사업에 관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진국사업에 관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진국사업에 관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진국사업에 관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그가 고향에 돌아와 진국사업에 관한 선전물을 집필하여 조종인 한별동지로 불리우던 그의 존함을 날 일자와 이를 성자로 된 존함 김일성동지로 고쳐부르기 시작한 때 바로 이 시기였다.

15년전 설명절에 있는 일도 회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정말 그때 오가자에서 있을 일들을 잊을수 없소. 그날 동무들은 설명절이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여 식사를 준비하였지만 그날이 그리워 한 회의의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시다가 안록주동지의 이름을 고쳐부른것을 상기하시며 우리는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할 때까지 진 맹세 번치 말고 싸워나가는 의 미에서 안록주를 안록주로 고쳐부른 일도 잊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사람가운데서도 혁명동지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것으로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오가자에서 혁명동지들과 함께 쇠진 설명절 날에 있는 일도 대하여 그처럼 못 잊어하시는데는 있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5년전의 그 일에 대하여 잊지 않으시고 감회깊이 회고해주시니 안록주동지는 감격을 금치 못하였었다.

그날 새 조국건설과 관련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립방인 중국혁명정세가 매우 긴박한 환경에 처하였는데 대해서도 알려주시면서 중국혁명동지들이 피흘리며 힘겨운 투쟁을 하고있는데 우리 조선혁명가를, 조선청년들이 정감인 중국물질을 중국혁명을 잘 도와주어야 할 국제적의무가 우리에게 맡겨져있습니나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때로부터 한달후였다. 안록주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여러 청년들과 함께 중국동북

지방에 들어가 중국동북항전투에 참가하게 되었다. 국민당반동들과 격전을 벌이며 사신을 헤쳐나가던 그는 주제 36 (1947)년 11월에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E. C.》의 기치가 나뉘기던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민중 청년전위들중의 한사람이었던 안록주동지는 수령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그대로 조선혁명뿐아니라 중국혁명을 위하여, 세계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빛나는 생을 마쳤다.

한 가정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던 안록주동지로부터 조선혁명,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안록주!

80년전 조종인민의 위풍凛凛인 설명절에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믿음과 사명속에 뜻깊은 이름과 더불어 혁명기의 새 삶을 받아안은 안록주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의 세계에서 오늘도 영생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시작하여 안록주동지가 세운 위훈을 잊지 못하시어 그를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다.

안록주동지의 유자녀들과 헤어져 두 우리는 생각하였다.

혁명기의 삶은 어떻게 빛나는가. 반일애국렬사인 안록주동지는 자기의 한평생과 같은 영생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야말로 이 땅의 천만사내에게 가장 고결하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라는것을 감동 깊게 배양하였었다.

본사기자 김준혁

8비탈련합기업소 합성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깊이 되새김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불멸의 명도업적을 통한 위대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양을 실속있게 벌러나고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계획을 주,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일꾼들이 생동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독보와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마진 직장의 한 일꾼은 새해 명절을 위하여, 세계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빛나는 생을 마쳤다.

한 가정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던 안록주동지로부터 조선혁명,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안록주!

80년전 조종인민의 위풍凛凛인 설명절에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믿음과 사명속에 뜻깊은 이름과 더불어 혁명기의 새 삶을 받아안은 안록주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의 세계에서 오늘도 영생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시작하여 안록주동지가 세운 위훈을 잊지 못하시어 그를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다.

안록주동지의 유자녀들과 헤어져 두 우리는 생각하였다.

혁명기의 삶은 어떻게 빛나는가. 반일애국렬사인 안록주동지는 자기의 한평생과 같은 영생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야말로 이 땅의 천만사내에게 가장 고결하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라는것을 감동 깊게 배양하였었다.

본사기자 김준혁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깊이

되새김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불멸의 명도업적을 통한 위대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양을 실속있게 벌러나고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위대성교양계획을 주,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 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일꾼들이 생동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대중속에 들어가 독보와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마진 직장의 한 일꾼은 새해 명절을 위하여, 세계혁명을 위하여 싸우다가 빛나는 생을 마쳤다.

한 가정의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던 안록주동지로부터 조선혁명, 세계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안록주!

80년전 조종인민의 위풍凛凛인 설명절에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믿음과 사명속에 뜻깊은 이름과 더불어 혁명기의 새 삶을 받아안은 안록주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의 세계에서 오늘도 영생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조선혁명의 려명기부터 시작하여 안록주동지가 세운 위훈을 잊지 못하시어 그를 반일애국렬사로 내세워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다.

안록주동지의 유자녀들과 헤어져 두 우리는 생각하였다.

혁명기의 삶은 어떻게 빛나는가. 반일애국렬사인 안록주동지는 자기의 한평생과 같은 영생을 통하여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야말로 이 땅의 천만사내에게 가장 고결하고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라는것을 감동 깊게 배양하였었다.

본사기자 김준혁

지 상 연 단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새해공동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현실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래, 김철의 실천력으로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전진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상연단에 영농전투에서 이룩한 혁신의 새 소식들과 가치있는 경험들을 적극 투고하여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새 소식과 자료들을 더 많이

당보지상연단은 인민생활향고조를 적극 추동하기 위한 대중연단이다.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상연단에 적극 참가할수록 농업생산에서의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중소기업의 불길높이 위한 창조

강성대국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체제의 역설기상인양 조국방방방곡곡으로 뻗어 나간 두줄기 케도우에 중층의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제때에 수행하는 결사관함의 부대이다.』

중소기업의 전투적과업을 피로한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가슴에는 새로운 신심과 드높은 열정으로 새창이 활짝 열리고있다.

새해 정초부터 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며 대고조전투를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장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렇듯 수송전사들은 중층투쟁의 불길높이를 더욱 세차게 지켜올리고 있다.

한층기판차대의 수송전사들 주요화물수송에서 혁신! 고철철거대의 기술자, 기능공들 많은 철길교착점을 자력으로 생산!

날에 날마다 속보판들에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새해 첫 전투에 들이선 함흥철길용검대에 배후유용과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배후유용과제를 비롯한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배후유용과제를 성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현장에 달려나와 전투조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이철도국 직원들의 책임과 열정이 어떻게든 배어 나간 두줄기 케도우에 중층의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때 대한 공동사업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깊이 새긴 함흥철길용검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불리한 조건에서도 설비들을 개량하여 배후유용과제를 훌륭히 완수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배후유용과제를 훌륭히 완수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배후유용과제를 훌륭히 완수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열을 계승하여 전체 인민들을 주체혁명위업에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영웅적투쟁에 힘있게 불리없이 뛰어들어야 한다.』

지금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해공동사업과 김철로동계급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열정을 다하고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농촌건설전진군대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시대의 선구자들을 전형으로 내세우고 본보기농장들을 적극 일반화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농촌건설과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전진을 일으켜 왔다.

현실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래, 김철의 실천력으로 더 높이 비약하고 더 빨리 전진하여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당보에서는 올해에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도록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기본을 두고 지상연단을 조직하게 된다.

당보지상연단의 목적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북돋아주어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앞당기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제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는데 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유가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유가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지상연단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당조직들이 지상연단의 목적과 중요성을 잘 해설해줄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열의와 열정을 다하여 지상연단에 적극 참가하여 혁신적발전의 새 소식을 더 많이 알리게 된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유가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유가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유가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유가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편집국

원고투고는 편지와 전화를 리용하여 할수 있다.

원고를 보낼 주소는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로동신문사 지상연단실』이다.

전화번호는 326-5628, 321-1817이다.

로동신문사 교환 326-2312를 찾아 면책을 가질수 있다.

당보는 투고자들을 기다린다.

원고투고는 편지와 전화를 리용하여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남조선국회에 편지를 보내었다

『평양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2일 남조선국회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전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친명한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기하는 편지를 보내었다.

우리는 친애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의의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의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땅에 태를 묻은 민족의 우성원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줄대로 되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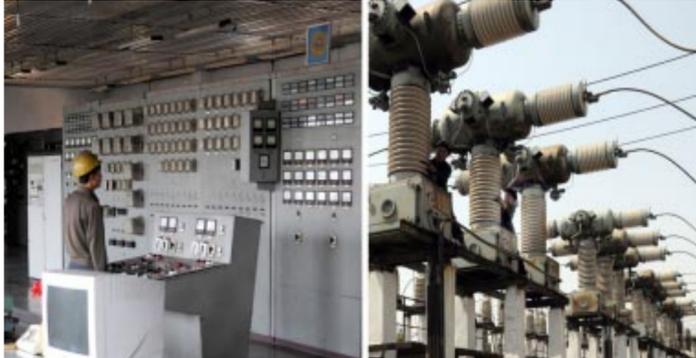
우리는 친애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의의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의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땅에 태를 묻은 민족의 우성원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줄대로 되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과학적인 품질관리질서를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요구

어디에 내용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려면 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원시에는 제품의 질에 대한 사회적관심과 요구가 비할바없이 높아진 시대에 맞게 경제성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품질감독부문을 생산에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요건에 맞게 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에 컴퓨터종합관리체계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된 전기를 손실없이 제때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잘하고있다. -동평 양화력발전소에서- 본사기자 김 종훈 찍음

우리는 친애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의의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의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땅에 태를 묻은 민족의 우성원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줄대로 되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친애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의의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의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땅에 태를 묻은 민족의 우성원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줄대로 되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친애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의의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의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땅에 태를 묻은 민족의 우성원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줄대로 되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친애한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국회의의 의원집중과 협상을 제의하는데 대해 언급하고 이땅에 태를 묻은 민족의 우성원이라면서 누가 누구인지를 엄중히 따져 물을 줄대로 되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뚜렷한 목표, 완강한 실천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새로운 과업이 제기되면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깊이 연구하고 높은 방법론을 세운 다음 사업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전개해나가는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은 공동사업과업관철을 위한 열사사업설계를 하면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여서 군당책임일군들은 물론 지방공업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하달된목표를 확실히 하달하고 있으며 그들모두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첫걸음부터 힘있게 내걸고 있다.

당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목표물을 세우고 방법론을 정확히 찾는다면 그 성과는 확정적이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은 공동사업과업관철을 위한 열사사업설계를 하면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여서 군당책임일군들은 물론 지방공업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하달된목표를 확실히 하달하고 있으며 그들모두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첫걸음부터 힘있게 내걸고 있다.

군당일군들은 공동사업과업관철을 위한 열사사업설계를 하면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군당책임일군은 공동사업과업관철을 위한 열사사업설계를 하면서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기로 하였다.

여서 군당책임일군들은 물론 지방공업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하달된목표를 확실히 하달하고 있으며 그들모두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첫걸음부터 힘있게 내걸고 있다.

생산의욕을 높여준 참신한 정치사업

정치사업도 과녁을 잘 겨누어야 큰 실료를 거둘수 있다.

수안군 통현리당위원회에서

있게 하는것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끊임없이 높여주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안군 통현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리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일반적 강조로 내치 않았고, 우선 분조장대회를 책임있게 하고 대중의 신심이 높은 농장원들로 꾸렸다.

『우리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언제 어디서나 정치사업을 늘려나고 활발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리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때 그 과제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안군 통현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리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때 그 과제가 있었다.

리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때 그 과제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안군 통현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리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때 그 과제가 있었다.

리당위원회가 정치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볼 때 그 과제가 있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안군 통현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은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손영희

학생소년들의 주제 100년 설맞이 모임 진행

【평양 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주제 100년 설명절을 맞이하여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이 3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설날을 맞이한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모임장소는

《주제 100》, 《행복》, 《축하》 등의 글씨가 띄여진 축 등들과 전광장치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

앙기관 일군들, 인민군장병들, 근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있는 해외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의 교대표들과 국제기구 대표들, 외국순년들이 모임에 초대되었다.

시장 《설인사 드려요》로 모임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노래선율과 춤물들이 펼쳐지는 속에 학생소년들과 세배들이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강성번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설인사를 올렸다.

공연 무대에는 합창 《김일성원수님품에 우리는 행복하여라》, 독창과 합창 《장군님은 온 세상입니다》, 민요독창 《고마워요 당의 품》, 손풍금과 노래 《사랑의 손풍금안고 노래불러요》, 너중창 《제일 기쁜 날》, 경음악 《우리는 행복해요》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나왔다.

학생 소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워 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마음껏 배우며 희망과 재능을 꽃피워가는 자기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감명있게 형성하여

로 날은 새에서 제일조선 학생소년들은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나는 조국의 벽간 술결에서 휘황한 태일을 그려보고있음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최첨단과학기술의 기수로, 태권도장사, 축구명수로 자랑날 학생소년들의 꿈과 포부를 담은 자랑무대 《지덕체 자랑》, 민요제창 《우리 기쁨 커만 가요》, 북놀이

《출전복을 올려라》는 생동한 형상과 높은 예술적기교로 하여 관람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무용 《원편 나는 꼬마군대》, 종장 《만경대피죽이 이어가리라》 등의 종목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주제혁명위업의 계승자, 강성대국건설의 역군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학생 소년들의 주제 100년 설맞이 모임 진행



손풍금과 노래 《사랑의 손풍금안고 노래불러요》



민족기악 2중주 《나는야 꽃봉오리》



자랑무대 《지덕체 자랑》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의 설화와 무용 《흥하는 래일로 날은 새》

신민주주의공화국에 들어서니 직기들의 동음이 노래소리처럼 들려왔다.

권사직장에 들려 기대사를 누벼가는 한 처녀의 작업모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직장장이 미소를 머금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직장의 눈높이는 처녀들중의 한사람인 권사직장 리운희동무의 눈높이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 1월 13일원제로 올해 첫달계획을 넘쳐 수행한 리운희동무를 축하하며 직장의 처녀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갔을 때였다. 리운희동무가 기대를 끌어보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우리 기어이 해냈어. 하지

만 만족할 수 없구나. 아버지장군님 발걸음따라 강성대국결승선을 향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다시한번 힘껏 달려라.》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두의 눈높이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부터 신민주주의공화국 처녀들의 눈이 더욱 높아졌

들과 혁신의 일터에서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준마치러들, 최첨단과학기술의 눈높이를 향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사색과 탐구의 한밤을 지새우고있는 여성과학자들, 세계패권을 쥐고 조국의 영예를 떨칠 자신만만한 배심으로 경기장에 나서는 여자체육선수들을 비로 말할 수 많은 처녀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신군조선의 딸이 된 준업과 공지를 안고 꿈도 많고 포부도 웅대한 나라 처녀들의 혁신의 눈, 창조적의 눈, 애국의 눈은 높다. 웅장 높아야 한다. 강성대국의 명마루에 향해 진 신군시대 우리 처녀들의 눈이 어찌 낮으랴.

본사기자 조 경 철

《과학연구사업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최첨단과학의 열풍을 세계 각국에 일으키며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내달리는 오늘날의 조선군대요의 앞장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에서는 교원들을 조직동원하여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교수교양사업과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신속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탐구와 실천으로 이어온 지난 한해를 자랑스럽게 돌아보는 교원, 연구사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영광과 긍지로 가슴박차던 한해였다. 평양북산공장과 중앙양기각공공공장, 대동강파수종합농장,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제령광산, 최첨발전공건설장, 단천광산기계공장, 룡천군 장산협동농장, 평양양말공장 등 생산공정

의 CNC화와 자동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한 단위들은 그 열매였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최첨단과학기술의 열풍을 일으키며 안아온 자랑찬 성과를 또한 이들의 심장을 창조적열정으로 더욱 높여주고 있었다.

다시한번 정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업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또다시 신심도인이 올해전투의 보폭을 크게 내걸고있다.

올해에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최첨단과학으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자! 모든 학부의 강좌들과 연구소들이 올해공동사업을 앞장서고 새로운 결의로 들

여러건의 과제를 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고있다.

기계과학기술대학의 류체력학, 유압공학, 리론역학, 강도의 교원,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받은 강서약수공장, 남포유리병공장 등에 나가 그곳 일군들과 기술자들과 합심하여 기술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토의하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고집어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순천지구청년반관련합기업소와 제령광산을 비롯한 여러 탄광, 광산에서 선진적인 광종별세부탐사방법법률과 자료기거지수측, 3차원모의기술응용 등의 연구과제를 맡고있는 자린탄광공학부의 교원, 연구사들과 은광광산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열심히 나서고있다.

금속공학부에서도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등에서 나가 가열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모를 박고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밖에도 전자공학부, 응용수학부, 반도체연구소, 물리공학연구소에서도 교원, 연구사들을 여러 부문에 과감하게 배치하는 연구사업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인민생활향상대고조의 불길 이 세차게 타오르는 공장, 기업소들과 철의 기둥, CNC화의 앞장에서 달리는 기계제작기지를, 발전소건설장들과 탄광, 광산 그 어디에나 최첨단과학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믿음직한 교원, 연구사들이 있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만을 드리려는 하나의 마음으로 불리는 교원, 연구사들, 언제나 혁명적신념과 망심으로 당을 따르고 과학기술로 내 조국을 받들어온 강성대국건설대참전자들의 이념혁명정신과 열정, 기상으로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비약과 혁신의 불꽃이 더욱 힘차게 타오르고 있다.

본사기자 공 로 혁

보건설 고려약생산관리국 산하단위 일군들, 로동계급이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높이 생산적업장을 일으키고있다.

올해공동사업과 김책로동계급의 편지를 받아안고 신심에 넘쳐 떨쳐나선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매일 계획이 넘쳐 수행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관리국적인 고려약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장성하였다.

관리국에서는 최근년간에 개발된 특사향, 너삼근신약, 다우메노이드탈약, 너삼향암주사약을 비롯한 50여종의 효능높은 약물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절세위원의 명도업적이 갖는 것은 공장들이 앞장서 있다. 강고려약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각종 고려약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는데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강고려약공공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을 다그쳐 계획수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회령고려약공장에서 교원들의 불길이 타버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고려약의 엑스화, 강화와 공장

의 무균화, 무진화를 훌륭히 실현하고 약물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긍지를 안고 하루생산량을 지난해보다 대폭 높이고있다.

평양시내 고려약공장에서 서면일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언제나 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평천고려약공장이 현대적인 설비를 새로 갖춘데 맞게 고려약생산의 엑스화비율을 높이면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함경남도, 황해남도내 고려약공장에서 교원들의 약초자원을 널리 리용하여 생산을 훨씬 높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올해에 다시한번 정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맥박치는 공동사업에서 앞장서고 있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갈 불같은 열기를 넘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과학기술로 만사를 해결하자! 이것이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신념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의 일군들은 공동사업을 깊이 학습하고 학부들에 내려가 공동사업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교원, 연구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투에 삶의 뚜렷한 자욱을 새겨갈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학장 박천숙, 부학장 김용주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나라의 정공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신심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얻기위하여 열심히 노력할것을 권하해주었다.

이들은 년초부터 수많은 유류자재를 수집하고 대학의 실습공정과 실험실습실에서 여러종의 소비품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학위학직소유자대렬에 들어서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적극 떠밀어주었다.

정공업부문의 현대화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와 기세는 비할바없이 높다.

대학에서는 전국의 여러 대학들이 참가하는 3, 4차원 기계부문, 피복부문의 설계경연, 프로그램속전과 로리경연에서 우수한 성과에 토대하여 정공업공정들의 현대화실현에 기여하고 원료자재들을 주체화, 국산화하는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교원들이나 장군님, 박성진동무와 여러명의 학생들은 수성천종합식료공장에 달려나가 도파과학기술보수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감자쌀, 빵, 콩우유, 효소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과 종합조식실의 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로 정공업발전을 적극 추동해가는 대학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은 자랑찬 성과를 낳게 될것이다.

진 철

정공업과학분원 발표연구소에서 최창조에게 하고있다.

최첨단기술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창성식료공장에 나가 제물공산에 적합한 균을 선택하고 육종도입하였으므로 합리적인 리파방법을 창안하여 질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생산공정에 진공증류장치와 리파설비 등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게 내밀고있다.

이곳 과학자들은 매우 장생산에 필요한 균을 선택하고 원료혼합비를 확정하여 공업화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기본적으로 끝내었다.

애국의 더운 피로 심장을 끓이고있는 과학자들은 회령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장의 질을 더 높이는 사업에도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불타는 창조적열정을 안고 이들은 단번질분해효소의 활성을 높이고 분석방법을 세웠으며 메주배양의 기술적조건을 확충하였다.

본사기자 오 철 훈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청진정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



흥겨운 민속놀이로 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 -김일성광장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작음

《과학연구사업을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청진정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청진정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청진정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청진정공업대학 일군들과 교원들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

천 만 군 민 의 불 라는 한 마 음

선군으로 빛나는 내 조국에 설명철의 아침은 어떻게 밝았는가.

기쁨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는 격동적인 사변도, 가슴 벅찬 기적과 위훈의 소식도 많았던 2010년을 보내고 설명철을 맞이한 뜻깊은 아침에 우리 인민의 마음과 마음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과연 어디였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유희의 뜻이 꾀어나는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님의 력사는 계속 흐르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2010년을 보내고 설명철을 맞이한 뜻깊은 아침에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으로는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새없이 흐르고 있었다.

손에 안고 꽃송이를 들고 달려온 인민군인들, 과학자들, 로동자, 농민들과 청소년학생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이 땅우

에 사회주의박원을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에게 대를 이어 수령복, 장관복을 안겨주시었으며 영원한 행복을 꽃피워주시어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이 성스러운 언덕에 꽃송이만을 안고온것이 아니었다.

《설명철을 맞고 보니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한평생 찬눈길, 비내리는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생각이

못 견디게 사무쳐와 설명철날의 첫 발자국을 만수대언덕으로 떼게 된 우리들입니다.》

가정에서 정히 피운 꽃송이들을 안고 계단을 오르던 중구역 서창동에 사는 한 주민이 우리에게 한 말이였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그리움의 감정이 아니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만수대언덕에 높이 서서 어머니수령님을 뵈고 싶어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수령님그대로서는 정애하는 장관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며 멀고 험한 전진길을 현지도의 길을 위임없이 이어나가시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주시기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설 명 철 을 뜻 깊 게

다시 한번 경영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갈 뜻깊은 올해의 설명철을 우리 인민들은 크나큰 신심과 망만으로 넘쳐 즐겁게 보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조선 민족으로 래어났것을 끝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 민족으로 래어났것을 끝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 민족으로 래어났것을 끝없는 자랑으로 여기고있으며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를 가지고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경기에서 선군조선의 본매를 보인 자랑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들은 최첨단과제에서 위훈을 세운 소식을 어머니수령님께 제일먼저 보고 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기쁨 속에, 맹세 속에

보통강구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체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내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우기 위하여는 나라를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스승과 제자들

뜻깊은 설명철 아침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기초학부 5학년 2반 학생들이 스승의 가정을 찾았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선생님, 설명철을 축하합니다!》



설명철을 맞은 수도시민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꽃 피어나다. - 모란봉구역에서 - 최충성 찍음

부강조국건설에서 위훈을 떨쳐가는 청년들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일군들의 반향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설명철을 맞으며 우리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91인민반에 사는 조남혁동무의 가정을 찾았다. 조남혁동무는 항일혁명투사 조동욱동지의 손자이다.》

애국의 열정속에 높아가는 쌀더미

천대군 로운협동농장 농산제 3 작업반원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담과 수렁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